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이 지역정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아산시 사례를 중심으로*

권 경 득 · 임 정 빈 · 김 덕 준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the Quality of Life of the North Korean Settlers on their settlement in South Korea.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the sample of 80 North Korean Settlers who had been settled in the city of Asan. The results show that their overall QOL(quality of life) level is above moderate(three point score) in the Likert five scales but their QOL level in the residence environment and economic activities fields is below moderate, respectively. Therefore, more efforts need to be made in the residence environment and economic activities fields. This study also show that their settlement were greatly influenced by their satisfactions in the field of health and welfare, economic activities and transportation conveniences.

1. 서 론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은 1990년대 초반까지 10명 이내의 적은 인원이었으나 1994년 김일성 사망을 기점으로 늘어나기 시작하여 2001년 1,043명, 2004년 1,894명, 2006년부터는

* 이 연구는 2010년도 선문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제1저자, 교신저자: 권경득, 공동저자: 임정빈, 김덕준

주 제 어 : 북한이탈주민, 새터민, 하나원, 삶의 질, '삶의 질' 만족도, 아산시

Key words : North Korean Settlers, SaeTerMin, Hanawon, Quality of Life(QOL), Satisfaction in QOL, City of Asan

매년 2,000명 이상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0). 또한 이들의 입국 경로가 이전에 비해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먼저 입국한 가족이나 친인척의 도움을 받아 입국하는 것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업무는 하나원을 중심으로 통일부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실태조사 및 임대주택 알선 등 일부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민간단체의 관심 증대로 정부 주도와 민간 보조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이 이루어지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에서 받는 3개월 교육에 더해 주거지역별 적응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2009년 3월 서울 북부, 경기 서부, 대구 등 3개 지역에 '하나센터'를 설치·운영하였다. 2010년 2월에는 서울 3개소, 인천, 경기, 강원, 충남, 경북에 각각 2개소, 경남, 광주, 전남에 각각 1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총 22개 하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별 하나센터의 증가와 함께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업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앞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정착을 위한 정책 방향이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이탈주민의 실질적인 정착지원 방안의 개발과 서비스 운영 총괄 업무를 수행하는 방향으로 역할이 설정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체계적인 정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내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지역내 정착을 위한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기존 문헌들은 북한이탈주민의 실태, 지원제도 및 한국사회에 대한 부적응의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다. 한국사회와 이질적인 사회문화적 환경과 폐쇄적인 제도속에서 오랫동안 생활해온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운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토대로 그들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되고 반영된 정책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아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삶의 질' 분석을 통해 그들의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지역사회의 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그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대안을 모색하였다.

II. 이론적 고찰

1. 북한이탈주민과 삶의 질

북한이탈주민이라 함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그리고 '보호대상자'라 함은 법에 의하여 보호 및 지원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그러나 이러한 법률적 용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을 북한이주민, 새터민, 탈북자 등으로 다양하게 지칭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국내외에 거주하는 모든 북한 탈출 주민을 포함하는 개념일 뿐만 아니라 기존에 사용되던 귀순자, 귀순 북한동포, 탈북난민 등과 비교할 때 탈 이데올로기적 성격이 강하며 '민족적 동포애'를 담고 있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언론기관 등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탈북자'와 통일부가 사용하는 '새터민'¹⁾과 용어 사용의 혼선이 있으나 법률적 용어인 '북한이탈주민'으로 호칭하는 것이 타당하다(박은숙, 2008).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이라는 특수성과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욕구와 만족에 대한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삶의 질'은 북한에서의 생활과는 전혀 다른 사회문화적 환경과 제도적 차이 등으로 인해 많은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삶의 질(Quality of Life) 개념은 상당히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 즉 '삶의 질'은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사람들의 상태를 의미하므로 명확하게 정의하거나 합의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다. '삶의 질' 개념에 대한 다양한 정의는 무엇이 바람직한 삶의 조건을 제공하는가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삶이란 속성자체가 동태적이며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이 각자의 삶을 영위하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WHO, 1975)는 건강이라는 개념을 통해 '삶의 질'을 정의하고 있는데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으로 완벽한 복지 상태'라고 하여 건강과 삶의 질을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또한, '개개인의 잠재력을 실현시킬 수 있는 삶이 보장되어 생활하고 일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의 경감과 관리에 관한 것'으로 '삶의 질'을 정의하기도 한다(권경득 외, 2007: 13).

삶의 질'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보다 넓은 의미의 영역으로 설명하고 있다. 내용적 차원에서 삶의 질은 '공평한 삶', '쾌적한 삶' 및 '풍요로운 삶'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조성한, 1996; 이상호, 1996; 정일환, 1996). 일반적으로 '삶의 질'은 심리적·사회적·신체적 건강 그리고 영적인 영역 등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관적이며 시간적 차원과 관계가 있다(Arosen, 1991; Ferrell, et al., 1995; Zebrack, 2000;

1) 통일부의 경우 내부문서나 보도자료 등에 '새로운 터전에서 삶의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란 뜻의 '새터민'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용어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Pedro, 2001; 임정원·한인영, 2008; 김현경·전우택, 2009). '삶의 질'에 대한 국제학회(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Quality of Life Studies, 1998)는 '삶의 질'의 구성요소를 물질적 복지(Material Well-being), 건강(Health), 생산력(Productivity), 가족관계(Intimacy), 안전(Safety), 사회관계(Community), 감성복지(Emotional Well-being) 등 7개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김태룡 외(2000)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의식주(衣食住)의 만족도, 가치관, 사회관계, 교육, 안전, 보건복지, 치안상태, 경제·노동, 여가, 행정과 참여, 환경 등의 만족도를 제시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에 입국한 이후에도 남북한 문제라는 독특한 정치·문화적 특징과 관련된 이질성, 상호무지, 상호불신, 적대적 긴장, 정체성 문제, 문화충격 및 생활스트레스와 관련된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민성길 외, 2010: 105).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삶의 질은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와 북한이탈주민들의 특성별 '삶의 질' 수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김영만, 2004: 34).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선행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주거, 교육·체육·문화, 보건복지, 경제활동, 환경, 도로·교통, 행정 및 치안 등의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지역에서의 '삶의 질'은 지역공동사회의 주민들이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장소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 만족감과 행복감에 근거하는 것, '살기 좋음'으로 파악하며(박철민·송건섭, 1999), 특정 지역이 제공하는 상황적 여건과 이를 인식하는 개인의 욕구와 기대의 결합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이해된다(이근수, 2011: 2).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정착은 개인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지원서비스의 만족도에 의해 지역 사회정착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지역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생활하고 일할 수 있는 '삶의 보장'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2. 선행연구 검토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연구는 남북한 사회통합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은 그들의 정착 자체가 남한사회의 통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과 정착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토대로 향후 통일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정길호, 2009).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기존의 연구경향은 주로 포괄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세부적인 주제별 연구는 아직 초기단계에 있다. 최근에는 직업능력개발 및 지역단위 사회적응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등 연구분야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 프로그램의 진행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평가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임정빈, 2010).

북한이탈주민 관련 선행연구의 경향을 분석해 보면, 1990년대 중반 이전까지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연구는 주로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부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시기의 특

정은 북한이탈주민 연구의 초기단계로서 북한과 관련된 정보의 탐색과 획득 그리고 북한 이탈주민의 생활환경 등 단순한 실태조사에 머물렀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는 주제별로 연구가 다양해지고 연구의 질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유형을 범주화 하면 <표-1>과 같다.

첫 번째 유형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기초연구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의 실태, 문제점 및 대책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이영선·전우택, 1996; 통일부, 1998; 통일연구원, 2000; 윤인진, 2001; 박현선, 2002; 윤여상, 2007; 안혜영, 2008; 박선영, 2009). 이들 연구는 기존의 선형적 연구물과 외국사례의 접근방법 등을 활용하여 주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실태와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정부차원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

두 번째 유형은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제도, 법규, 인권개선, 지역협력체계 등에 관한 연구이다. 이 유형의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제도, 법규제정 및 개선, 인권개선, 지역협력체계의 모색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이기영·이기춘, 2000; 이정우·김형수, 1996; 황무임, 1998; 제성호, 2001; 이시형, 2008; 이효원, 2008). 이들 연구들은 주로 정부지원의 공식적·정책적인 직·간접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기본권 확장문제, 법적 지위 획득 및 보장문제, 제도적 문제 등을 검토하여 국내외적 법적·제도적 차원의 대처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연구들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문제의 국내외적 제도적 환경요인을 분석하는데 간접자료로 활용되기도 한다.

세 번째 유형은 북한이탈주민의 교육, 직업훈련 등에 관한 연구이다. 이 연구들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문화적 적응과 관련하여 교육과 직업훈련 차원에서 일종의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 교육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이범용, 2000; 이기영, 2001; 윤황, 2003; 고혜원, 2008; 박선영, 2009). 이들 연구의 경향은 남한사회와 체제와 이념이 전혀 다른 북한체제에서 살아온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한국사회의 사회문화적응을 위한 교육과 직업훈련에 관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네 번째 유형은 북한 이탈주민의 개인적·심리적·문화적 적응과 갈등 분야에 관한 연구이다. 이 분야의 연구들은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심리적·문화적 적응과 부적응, 갈등문제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그 대책을 주요 주제로 다루고 있다(전우택, 2000; 정진경, 2002; 양정훈, 2005; 최경환, 2007; 유해숙, 2009).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이나 가족이 새로운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사회적응 정도의 심리적·문화적 갈등과 그 해소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다섯 번째 유형은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여건, 사회복지, 여가활동 등에 관한 연구이다. 이 분야의 연구들은 북한이탈주민이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인간다운 최저생존권 보장과 '삶의 질'을 추구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들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적응과정에서 경제적 자립이 중요하고 동시에 복지 및 여가생활의 수준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기영·배화숙, 2000; 박순영, 2002; 윤인진, 2007; 김연희, 2009). 따라서 이들 연구들은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생활과 관련하여 자립의 실태, 자립의 모델, 갈등의 해소방안 등을 다루고 있으며, 복지 및 여가생활과 관련하여 적응의 실태, 적응과 부적응의 진단, 그 수준의 향상과 정책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여섯 번째 유형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 자원봉사 등에 관한 연구이다. 이 분야의 연구들은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의 올바른 이해와 인식 속에 향후 통일 이후 남북 주민통합의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측면을 주로 다루고 있다(박윤숙, 2001; 이기영, 2001; 정경환, 2006; 박영미, 2008). 이 분야 연구의 특징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남북통합적인 관점에서 그들의 인식과 이해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 통일대상으로서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공정하고 객관적인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일곱 번째 유형은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서 경험하고 있는 '삶의 질'에 관한 연구이다. 이 분야의 연구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서의 적응양상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개발한 '삶의 질' 척도 중 하나인 간편형을 한국 표준화한 척도(Korea Version of WHOQOL-Brief)를 사용하여 일정시점에서 평가하거나 주기적 시점에서 비교 평가한 연구들이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주관적 생활만족도' 또는 '삶의 질'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 등이 있다(민성길 외, 2010;곽정래, 2010; 김영만, 2004).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는 한국사회 적응에 있어서 주로 적응과 부적응에 대한 상황을 살펴보면서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심리적 요인과 문화적 요인들로 인해 한국사회 정착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표-1> 북한이탈주민 관련 주요 선행연구

유형	연구내용	연구방법	연구자
제1유형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실태와 문제점 분석 및 정부차원의 정책적 대안 제시	문헌조사 고찰 및 통계자료 분석(기존의 선행적 연구물과 외국사례의 접근방법 활용)	이영선·전우택(1996), 통일부(1998), 통일연구원(2000), 윤인진(2001), 박현선(2002), 윤여상(2007), 안혜영(2008), 박선영(2009) 등
제2유형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제도, 법규제정 및 개선, 인권개선, 지역협력체계의 모색 등을 통한 법적·제도적 차원의 대처방안 제시	문헌조사 고찰 및 기존제도 분석(지원제도, 법규, 인권개선, 지역협력체계 분석)	이기영·이기춘(2000), 이정우·김형수(1996), 황무임(1998), 제성호(2001), 시형(2008), 이효원(2008) 등
제3유형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문화적응	문헌고찰 및 교육프로그램	이범용(2000), 이기영(2001),

	을 위한 교육과 직업훈련에 관한 방안 제시	분석(북한이탈주민의 교육, 직업훈련 등에 관한 연구)	윤황(2003), 고혜원(2008), 박선영(2009) 등
제4유형	한국사회 적응과정에서 개인적·심리적·문화적 적응과 부적응, 갈등문제의 실태와 문제점, 해소방안제시	개인적·심리적·문화적 적응과 갈등 분석	전우택(2000), 정진경(2002), 양정훈(2005), 최경환(2007), 유해숙(2009) 등
제5유형	경제적 자립실태 및 자립모델, 갈등 해소방안 제시와 복지 및 여가생활 관련 적응과 부적응의 진단, 그 수준향상과 정책대안 모색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여건, 사회복지, 여가활동 등에 관한 연구	이기영·배화숙(2000), 박순영(2002), 윤인진(2007), 김연희(2009) 등
제6유형	정당한 평가와 공정하고 객관적인 대우 보장 강조 남북 주민통합 차원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강화 강조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 자원봉사)	박윤숙(2001), 이기영(2001), 정경환(2006), 박영미(2008) 등
제7유형	한국사회 적응과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과 '삶의 질'과의 관계 분석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삶의 질 척도, 우울증 평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진단 등 주로 사회심리적 측면에서의 조사)	민성길 외(2010),곽정래(2010), 김성준(2009), 김영만(2004) 등

이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연구는 시기적으로는 1990년 중반이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다양한 주제들이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에게 주어진 객관적인 생활환경속에서 그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안녕감' 또는 '행복감'으로 표현되는 '생활만족도' 즉,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어떻게 정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들의 '삶의 질' 지표를 조사·분석하여 현 생활실태를 진단하고, 북한이탈주민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정착을 성공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III. 조사설계

1. 연구모형 및 주요 변수

북한이탈주민이 특정 지역내에 정착한다는 것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만족스럽고, 사회심리적으로 안정되며, 거주환경이 편리하거나 쾌적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듯 장소가 주는 효용성으로 인해 북한이탈주민이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좋다고 인식하면 지속적으로 정착을 할 것이며, 그렇지 못하다면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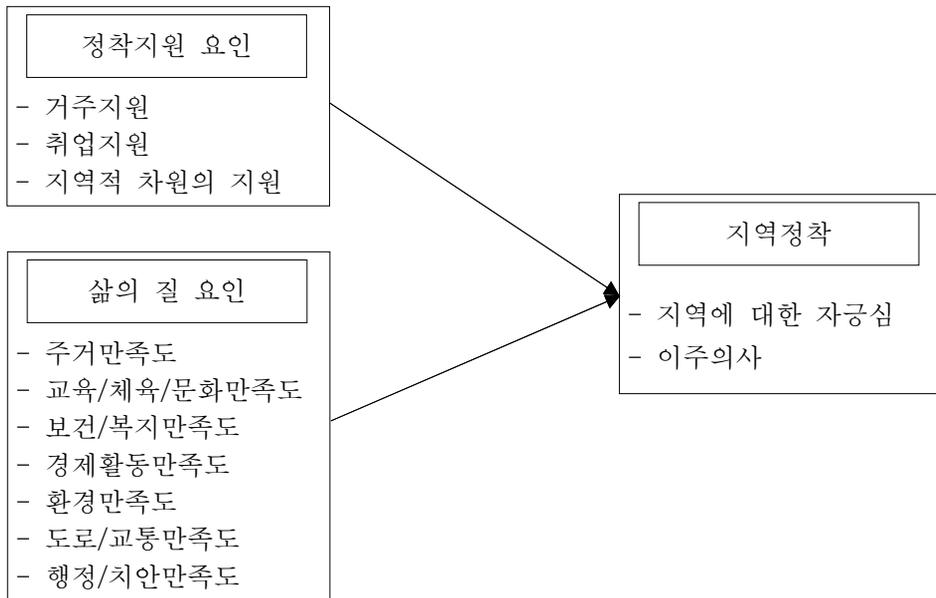
지역 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이동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살펴보면, 지역간 임금 또는 소득수준의 차이, 지역의 편의성과 쾌적성, 장소의 효용성 등이 현 거주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유인하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Ravenstein, 1885; Todaro, 1976; Graves & Linneman, 1979). 특히, 지역에서의 경제적인 삶, 지역이 갖는 편의성과 쾌적성, 장소가 주는 효용성 등은 지역에 대한 '삶의 질' 수준과 '지역간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한편, 자긍심은 '집단내 타인으로부터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고 능력 있는 구성원으로 인식되고 있는가에 대한 정도'로 개인적 차원에서의 인식 정도로 정의된다(김영진, 2000). 이러한 자긍심은 개인이 노출된 사회환경에 의해 제기된 암묵적 신호, 사회적 환경에서 영향력 있는 타인으로부터의 메시지 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며(Pierce & Gardner, 2004), 개인의 사회적 행동의 역할을 결정하는 주요 특성으로 작용하게 된다. 북한이탈주민의 지역 정착은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와 지역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와 관련된 만족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지역에 정착하였다는 것은 그 지역에 대해서 얼마나 자긍심을 느끼고 있는가와 정주하려는 의사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인과 지역적 차원에서 제공되는 정착지원 요인이 북한이탈주민의 지역내 정착에 중요한 영향요인이며,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요인이라는 실증적 분석을 통해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지역내 정착률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1)과 같은 연구모형에 입각하여 어떠한 요인이 북한이탈주민의 지역 정착에 도움을 주는지를 분석하였다. 거주지원, 취업지원, 지역적 차원의 지원 등 '정착지원 요인'과 주거, 교육/체육/문화, 보건/복지, 경제활동, 환경, 도로/교통, 행정/치안 등 '삶의 질 요인'은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이주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앞서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의 요인을 북한이탈주민의 특성별 '삶의 질' 수준과 선행연구를 통해 일반화된 '삶의 질' 요인을 고려하여 '정착지원 요인'과 함께 독립변수로 구성하였다(<표-2> 참조). 정착지원 요인으로는 거주지원, 취업지원, 지역적 차원의 지원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삶의 질' 요인으로는 주거 만족도, 교육/체육/문화 만족도, 보건/복지 만족도, 경제활동 만족도, 환경 만족도, 도로/교통 만족도, 행정/치안 만족도 등으로 구성하였다. 반면에 종속변수인 지역 정착은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이주의사'로 구성하였다(<표-2> 참조).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구성하는 측정지표는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1점 '매우 낮은 수준'~5점 '매우 높은 수준').



(그림-1) 연구모형

<표-2> 주요 변수와 측정지표

요인	변수	측정지표
정착지원 요인	거주지원	- 정착금지원 - 주거지원
	취업지원	- 취업지원 - 직업훈련지원
	지역적 차원의 지원	- 거주지 보호담당관, 정착도우미 - 민간단체/종교단체 지원
삶의 질 요인	주거 만족도	- 거주주택 - 생활편리 - 이웃간 관계 - 생활환경 쾌적성
	교육/체육/문화 만족도	- 교육환경 - 문화/공연/전시회 - 취미교양강좌/부업교육 - 근린체육시설
	보건/복지 만족도	- 사회복지시설 이용편리성 - 병원(보건소)이용 편리성 - 건강지원정책
	경제활동 만족도	- 근로여건 - 보수수준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임금격차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대우
	환경 만족도	- 도시환경 - 소음/대기/수질 - 생활주변 청결도
	도로/교통 만족도	- 도로교통시설 인프라 - 교통소통 - 대중교통 이용편리성
	행정/치안 만족도	- 치안 - 불편사항 개선 - 행정서비스
지역정착	지역에 대한 자긍심	- 지역에 대한 자긍심
	이주의사	- 이주의사

2. 설문조사 및 설문응답자의 특성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아산시 거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²⁾ 설문조사는 아산시 신변보호담당관의 협조를 받아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자를 대상으로 설문문항 및 설문조사 방법에 대해 사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0년 8월 11일부터 2010년 9월 10일까지 약 1개월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아산시 거주 북한이탈주민 총 180여명 중 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결과 설문응답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6개의 설문지를 제외한 74개 설문지를 대상으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표-3> 참조), 성별의 경우, 남성 19.4%, 여성 80.6%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연령은 40대 35.6%, 30대 32.9%, 50대 19.2%, 20대 6.8%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46.5%, '중학교' 졸업 31.0%, '대학' 졸업 11.3%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월평균소득은 100만원미만이 74.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100만원~200만원미만이 21%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직업은 무직이 39.4%로 가장 많았으며, 주부가 22.7%, 생산/건설분야 15.2%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남한거주기간은 1년 미만이 35.6%로 가장 많았으며, 1~2년이 31.5%를 차지하고 있다. 거주지역은 설문응답자의 90.4%가 아산시 온양 6동에 거주하고, 설문응답자의 9.6%는 아산시 '기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아산시는 '북한이탈주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에 건설하게 적응하여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2010.5.6)'를 제정하였다. 또한, 아산시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이 지역정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의 대상으로 아산시를 선정하였다.

<표-3>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구분		빈도(명)	비율(%)	
성 별	남성	14	19.4	연 령	20대	5	6.8	
	여성	58	80.6		30대	24	32.9	
	합계	72	100.0		40대	26	35.6	
학 력	초등학교 졸업	1	1.4		50대	14	19.2	
	중학교 졸업	22	31.0		60대 이상	4	5.5	
	고등학교 졸업	33	46.5		합계	73	100.0	
	2년제 대학졸업	6	8.5		직 업	사무직	1	1.5
	4년제 대학이상	2	2.8			생산/건설	10	15.2
	기타	7	9.9			전문/기술직	1	1.5
합계	71	100.0	학생			2	3.0	
월 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46	74.2	주부		15	22.7	
	100만원~200만원미만	13	21.0	무직		26	39.4	
	200만원~300만원미만	2	3.2	기타	11	16.7		
	400만원이상	1	1.6	합계	66	100.0		
	합계	62	100.0					

IV. 아산시 북한이탈주민의 현황과 ‘삶의 질’이 지역정책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아산시 북한이탈주민의 현황과 정착지원

아산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은 2010년 9월 현재 180명(남 44명, 여 136명)이다.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온양 6동으로 119명이 거주하고 있다. 아산시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특성3)은 폐쇄적이고, 의료보험(비급여 등)의 혜택을 받고 있으나 건강이 좋지 않으며, 다중집합 모임이나 사진촬영을 기피하고, 의심과 두려움이 많아서 일반 주민과의 만남과 대화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들 대다수가 취업을 희망하고 있지만 취업의지와 자활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중국 내 브로커 또는 종교단체를 통해 북한을 이탈하였으며, 국정원 조사를 거쳐 하나원에서 3개월 교육을 받은 후에 아산시로 이주하였다. 아산시로 이주하면서 ‘정책도우미 기관들’(아산시의 경우, 대한적십자사 아산지부, 자유총연맹 아산지부, 하나센터 등으로 지역마다 도우미 기관의 차이가 있음)이 이들의 지역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3)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은 아산시청, 경찰서, 고용지원센터, 정착지원센터 등의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정은 세 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는 국정원 조사 단계, <2단계>는 하나원 교육 단계, <3단계>는 거주지 선택 및 정착 단계 등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은 하나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원의 정식명칭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통일부 소속기관이다.

아산시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정에서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지원은 충남서북부 하나센터의 지원을 들 수 있다. 하나센터는 통일부로부터 지정받은 전문기관으로써 충남서북부 7개 지역(천안, 아산, 당진, 예산, 홍성, 서산, 태안)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지역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지역적응교육 및 사후관리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응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주요 사업내용은 살펴보면 첫째, 지역적응교육(3주)으로 신규전입자들이 지역사회내에서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65시간의 지역적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둘째, 지역적응 지원체계로 통합적 사례관리, 취업지원, 교육지원, 의료지원, 법률지원, 지역네트워크구축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사후관리는 지역적응 교육 후 11개월간의 사후관리를 통해 지역사회내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역차원에서의 정착과정에 따른 지원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첫째, '아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아산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아산시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지원단체로 지원시책 및 범위는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조사 실시, 언어·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고층·생활·법률 등의 상담 및 지원, 직업교육지원 및 취업 알선, 응급 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둘째, 아산시는 '아산시 북한이탈주민 종합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탈북주민정착지원센터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센터의 운영은 자유총연맹 아산시지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24시간 콜센터운영 및 사회적응교육(법률, 건강, 취업 등), 구호 및 보건의료, 취업교육지원, 지역 문화·체육행사 참여, 자녀공부방 운영 및 역사문화탐방, 북한이탈주민 전용공간 확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아산시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협의회의 기능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북한이탈주민과 가정에 대한 취업 및 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민·관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북한이탈주민의 공동체 참여 사업에 관한 사항, 북한이탈주민 지원활동 관련 상벌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셋째, 아산시는 '아산시 보호 및 상담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을 담당하는 아산시의 주요 담당기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거주지 결정 후에는 3개 기관에서 담당하는데 ① 거주지보호는 시청(아산시 총무과)에서 담당하고(행정, 학력을

인증해주는 서류담당), ② 신변보호 및 관리는 관할 경찰서인 아산경찰서(정보/보안계 담당)에서 담당하며, ③ 취업보호는 안정된 정착을 위해서 고용노동부 취업지원센터(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 천안과 아산은 통합적으로 천안고용지원센터 담당)가 담당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차원에서는 '아산 정착지원센터'가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2.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정착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정착지원과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아산시의 정착지원과 '삶의 질' 만족도를 살펴보면(<표-4> 참조), 정착지원의 경우 5점 척도4)를 기준으로 지역차원의 지원이 만족도(3.74점)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주지원(3.24점), 취업지원(3.14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지원의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삶의 질'과 관련해서는 행정/치안분야가 3.3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보건/복지분야(3.31점), 교육/체육/문화(3.14점), 주거(3.12점), 도로/교통(3.11점), 경제활동(2.94점)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착지원에서 '취업지원의 만족도'(3.14점)가 낮게 나타난 것과 관련하여 '삶의 질'에 있어서도 '경제활동에 대한 만족도'(2.94점)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정착에 있어서 경제적인 안정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지역차원에서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해 경제활동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표-4> 정착지원과 '삶의 질' 만족도 (5점 척도)

구분	정착지원 만족도			'삶의 질' 만족도						
	거주	취업	지역	주거	교육체육문화	보건복지	경제활동	환경	도로교통	행정치안
평균	3.24	3.14	3.74	3.12	3.14	3.31	2.94	2.98	3.11	3.32
표준편차	.66	.71	.79	.60	.71	.73	.77	.62	.71	.55

2) 북한이탈주민의 특성과 정착지원 및 '삶의 질' 관계

정착금 지원과 주거지원과 같은 거주지원, 취업 및 직업훈련지원과 같은 취업지원, 거주지 보호담당관/정착도우미 및 민간단체/종교단체 지원 등 지역차원의 정착지원에 있어서 북한이탈주민의 연령별, 거주기간별 특성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표-5>참조). 또한, 분산분석 후 유의수준 내에 드는 경우에는 Scheffe통계기법을 활용하여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거주지원, 취업

4) 본 연구에서는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매우 불만족' 1점, '불만족' 2점, '보통' 3점, '만족' 4점, '매우 만족' 5점).

지원 및 지역적 차원지원 만족도가 5점 척도를 기준으로 평균 3.0점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연령과 거주기간에 따라 거주지원, 취업지원 및 지역적 차원의 지원의 만족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5> 북한이탈주민의 연령·거주기간과 정착지원 만족도와의 관계 (5점 척도)

구분		범주	표본수	만족도	F값	유의수준	사후검증
거주지원 만족도	연령	30대이하	29	3.2069	0.497	0.61	-
		40대	25	3.32			
		50대이상	17	3.1176			
	거주기간	1년미만	26	3.3846	1.084	0.344	-
		1-2년	22	3.1136			
		2년이상	23	3.1957			
취업지원 만족도	연령	30대이하	29	3.0517	0.678	0.511	-
		40대	26	3.2692			
		50대이상	17	3.0882			
	거주기간	1년미만	26	3.3269	1.5	0.23	-
		1-2년	23	3.1087			
		2년이상	23	2.9783			
지역적 차원의 지원 만족도	연령	30대이하	29	3.5	2.093	0.131	-
		40대	25	3.86			
		50대이상	17	3.9118			
	거주기간	1년미만	26	3.6731	0.204	0.816	-
		1-2년	22	3.6818			
		2년이상	23	3.8043			

*p<0.10, **p<0.05, ***p<0.01

북한이탈주민의 성별·소득수준별 정착지원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표-6> 참조), '거주지원 만족도'에 있어서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가 p<0.08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t=1.799, p=0.077). '100만원 이상의 소득수준을 보이는 집단'에서는 거주지원 만족도가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25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100만원 이하의 소득수준을 보이는 집단'에서는 2.91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저소득 계층의 거주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어 저소득계층의 불만족요인을 도출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차원의 지원 만족도'에 대해서 성별에 따라 만족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2.506, p=0.015). 5점 척도를 기준으로 남성의 만족도(4.23점)가 여성의 만족도(3.65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6> 참조). 지역차원의 지원에 있어서 여성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표-6> 북한이탈주민의 성별·소득수준과 정착지원 만족도와의 관계 (5점 척도)

구분		범주	표본수	만족도	t값	유의수준
거주지원 만족도	성별	남성	13	3.1923	-0.302	0.763
		여성	57	3.2544		
	소득수준	100만원미만	44	3.25	1.799	0.077*
		100만원이상	16	2.9063		
취업지원 만족도	성별	남성	14	3.1429	-0.111	0.912
		여성	57	3.1667		
	소득수준	100만원미만	46	3.1848	0.997	0.323
		100만원이상	16	2.9688		
지역적 차원의 지원 만족도	성별	남성	13	4.2308	2.506	0.015**
		여성	57	3.6491		
	소득수준	100만원미만	44	3.6705	-0.789	0.433
		100만원이상	16	3.8438		

*p<0.10, **p<0.05, ***p<0.01

본 연구에서 ‘삶의 질’은 주거, 교육/체육/문화, 보건/복지, 경제활동, 환경, 도로/교통, 행정/치안 만족도 변수로 구성하였으며, 각 변수별로 북한이탈주민의 연령, 거주기간, 성별, 소득수준별 특성에 따라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표 7> 참조). 또한 분산분석후 유의수준내에 드는 경우 Scheffe통계기법을 활용하여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연령과 관련해서는 ‘주거 만족도’의 경우 50대이상(3.42점)은 30대이하(3.02점)와 40대(3.01점)에 비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F=3.137, p=0.05). 또한, 거주기간과 관련해서는 ‘경제활동 만족도’가 ‘1년 미만’ 거주자(3.36점)와 ‘1~2년’ 거주자(2.89점)가 ‘2년 이상’ 거주자(2.58점)에 비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F=4.359, p=0.019). 연령대가 낮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주거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정책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경제활동에 대한 정착초기의 ‘기대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다양한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표-7> 북한이탈주민의 연령·거주기간과 '삶의 질' 만족도와 의 관계 (5점 척도)

구분		범주	표본수	만족도	F값	유의수준	사후검증
주거 만족도	연령	30대이하	29	3.0201	3.137	0.05**	30대이하=40대 <50대이상
		40대	25	3.0133			
		50대이상	18	3.4167			
	거주기간	1년미만	26	3.0962	1.213	0.303	-
		1-2년	22	3.0038			
		2년이상	24	3.2743			
교육/체육/ 문화 만족도	연령	30대이하	28	3.0714	0.29	0.749	-
		40대	26	3.1442			
		50대이상	18	3.2361			
	거주기간	1년미만	26	3.2212	0.277	0.759	-
		1-2년	23	3.0688			
		2년이상	23	3.1377			
보건/복지 만족도	연령	30대이하	29	3.2816	0.165	0.848	-
		40대	25	3.2667			
		50대이상	17	3.3922			
	거주기간	1년미만	24	3.4167	0.511	0.602	-
		1-2년	23	3.3188			
		2년이상	24	3.2014			
경제활동 만족도	연령	30대이하	23	2.9217	1.565	0.22	-
		40대	13	3.1154			
		50대이상	12	2.6167			
	거주기간	1년미만	15	3.36	4.359	0.019**	2년이상<1년미 만=1~2년
		1-2년	18	2.8889			
		2년이상	15	2.58			
환경 만족도	연령	30대이하	28	2.9464	1.58	0.213	-
		40대	25	2.8533			
		50대이상	18	3.1852			
	거주기간	1년미만	25	2.8267	1.524	0.225	-
		1-2년	23	3			
		2년이상	23	3.1377			
도로/교통 만족도	연령	30대이하	28	3.0595	0.618	0.542	-
		40대	26	3.0641			
		50대이상	18	3.2778			
	거주기간	1년미만	26	3.0128	0.894	0.414	-
		1-2년	23	3.0725			
		2년이상	23	3.2754			
행정/치안 만족도	연령	30대이하	29	3.3161	0.768	0.468	-
		40대	23	3.2101			
		50대이상	18	3.4259			
	거주기간	1년미만	24	3.2153	0.68	0.51	-
		1-2년	22	3.3258			
		2년이상	24	3.4028			

*p<0.10, **p<0.05, ***p<0.01

성별과 관련해서는 '삶의 질'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8> 참조). 다만, 소득수준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 만족도'가 '100만원 미만'이 3.45점, '100만원 이상'이 2.79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소득수준에 따른 만족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t=2.995$, $p=0.004$).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보건복지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기 때문에 양질의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행정/치안 만족도'의 경우에는 '100만원 미만'이 3.33점, '100만원 이상'이 3.06점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행정/치안 만족도'의 차이는 $p<0.08$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t=1.81$, $p=0.076$).

<표-8> 북한이탈주민의 성별·소득수준과 '삶의 질' 만족도와의 관계 (5점 척도)

구분	범주	표본수	만족도	t값	유의수준	
주거 만족도	성별	남성	14	3.244	0.787	0.434
		여성	57	3.1009		
	소득수준	100만원미만	45	3.0796	0.268	0.79
		100만원이상	16	3.0365		
교육/체육/문화 만족도	성별	남성	14	3.0476	-0.505	0.615
		여성	57	3.155		
	소득수준	100만원미만	46	3.1793	1.995	0.051
		100만원이상	16	2.8281		
보건/복지 만족도	성별	남성	14	3.0238	-1.523	0.132
		여성	56	3.3482		
	소득수준	100만원미만	44	3.3485	2.995	0.004***
		100만원이상	16	2.7917		
경제활동 만족도	성별	남성	10	2.59	-1.506	0.139
		여성	37	3.0		
	소득수준	100만원미만	30	2.9533	0.387	0.701
		100만원이상	12	2.8583		
환경 만족도	성별	남성	14	3.0952	0.814	0.419
		여성	56	2.9435		
	소득수준	100만원미만	45	2.9667	1.363	0.178
		100만원이상	16	2.7292		
도로/교통 만족도	성별	남성	14	3.0714	-0.187	0.852
		여성	57	3.1111		
	소득수준	100만원미만	46	3.0725	0.275	0.785
		100만원이상	16	3.0208		
행정/치안 만족도	성별	남성	14	3.3095	0.021	0.984
		여성	55	3.3061		
	소득수준	100만원미만	43	3.3256	1.81	0.076*
		100만원이상	16	3.0625		

* $p<0.10$, ** $p<0.05$, *** $p<0.01$

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과 '삶의 질' 만족도가 지역정착에 미치는 영향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 만족도와 '삶의 질' 만족도간에 상관성이 어느 정도 있는 지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표-9> 참조). 정착지원에 있어서는 거주와 취업의 상관관계가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으며($r=.525$), '삶의 질'에 있어서는 보건/복지와 교육/체육/문화의 상관관계가 '약간 높게' 나타났다($r=.623$). 또한, 보건/복지와 주거($r=.532$), 환경과 주거, 교육/체육/문화, 보건/복지와 상관관계가 각각 '보통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각각 $r=.599$, $r=.539$, $r=.520$).

<표-9>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만족도와 '삶의 질' 만족도의 상관관계

구분	정착지원 만족도			'삶의 질' 만족도						
	거주	취업	지역	주거	교육체육문화	보건복지	경제활동	환경	도로교통	행정치안
정착 지원	거주	1								
	취업	.525**	1							
만족도	지역	.273*	.219	1						
	주거	.530**	.485**	.394**	1					
'삶의 질' 만족도	교육체육문화	.456**	.443**	.316**	.587**	1				
	보건복지	.677**	.572**	.274*	.532**	.623**	1			
	경제활동	.25	.401**	.133	.015	.318*	.440**	1		
	환경	.467**	.400**	.145	.599**	.539**	.520**	.185	1	
	도로교통	.416**	.314**	.231	.344**	.501**	.484**	.338*	.478**	1
	행정치안	.423**	.446**	.311**	.471**	.538**	.520**	.274	.564**	.595**

* $p<0.05$, ** $p<0.0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과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가 아산시에 거주하면서 느끼는 '자긍심'과 '이주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10> 참조). 먼저, '자긍심'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의 경우, 회귀모형의 다중공선성 진단결과⁵⁾ VIF값은 1.527에서 2.695까지 나타나고 있어서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적합도를 설명하는 R2값은 0.507로 정착지원 요인과 '삶의 질' 요인으로 구성된 독립변수들의 변동이 종속변수인 자긍심의 변동을 50.7% 설명하고 있으며,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3.388$, $p<0.01$). 특히, 거주지원 만족도($\beta=0.318$, $p=.068$)와 교육/체육/문화 만족도($\beta=0.439$, $p=.057$)가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이주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의 경우, 회귀모형의 다중공선성 진단 결과 VIF값은 1.464에서 3.453까지 나타나고 있어서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적합도를 설명하는 R2값은 0.462로 독립변수인 정착지원과

5) 일반적으로 공차의 한계값은 최대가 1이고, 다중공선성이 낮을수록 공차의 한계값은 높게 나타난다. 또한 분산팽창인자(VIF)는 10이상일 경우 다중공선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삶의 질’의 제 요인의 변동이 종속변수인 ‘이주여부’의 변동을 46.2%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F=2.836, p<0.05$). 도로/교통 만족도($\beta=-0.644$), 보건/복지 만족도($\beta=0.607$), 경제활동 만족도($\beta=-0.331$)의 순으로 ‘이주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이한 사항은 보건/복지 만족도가 높은 경우 ‘타 지역으로의 이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보건/복지 만족도’의 평균이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31점으로 높은 편이지만 ‘타 지역의 보건복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서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추론된다. 그리고 ‘경제활동 만족도’와 ‘도로/교통 만족도’가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정착(정주)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비중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결과는 향후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여건에 대한 만족도와 도로/교통 만족도가 높으면 이들의 장기적인 지역정착(정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표-10> 북한이탈주민의 지원 만족도와 ‘삶의 질’ 만족도가 지역정착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변수	자궁심			이주여부			
	표준화 계수(β)	t값	유의확률(p)	표준화 계수(β)	t값	유의확률(p)	
정착지원 요인	거주지원 만족도	0.318	1.694	0.1*	-0.206	-1.032	0.31
	취업지원 만족도	-0.2	-1.102	0.279	0.037	0.195	0.847
	지역적 차원의 지원 만족도	-0.059	-0.388	0.7	-0.083	-0.539	0.593
‘삶의 질’ 요인	주거만족도	0.352	1.89	0.068*	-0.16	-0.841	0.406
	교육/체육/문화만족도	0.439	1.973	0.057*	-0.072	-0.304	0.763
	보건/복지만족도	-0.177	-0.84	0.407	0.607	2.621	0.013**
	경제활동만족도	0.09	0.592	0.558	-0.331	-2.119	0.042**
	환경만족도	-0.115	-0.574	0.57	-0.012	-0.058	0.954
	도로/교통만족도	0.036	0.212	0.833	-0.644	-3.661	0.001***
	행정/치안만족도	0.16	0.838	0.408	0.203	1.019	0.315
			$R^2=0.507, F=3.388***$				$R^2=0.462, F=2.836**$

* $p<0.10$, ** $p<0.05$, *** $p<0.01$

V. 분석결과 및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착지원서비스의 만족도와 분야별 ‘삶의 질’ 만족도는 대부분 ‘보통 수준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분야별 ‘삶의 질’ 만족도에 있어서 ‘경제활동’과 ‘환경’분야는 ‘보통 수준에 약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관련해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주거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정착지원'이나 '보건/복지', '행정/치안' 등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거주기간이 길수록 '경제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착지원이 단기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고, 실제 안정적인 지역정착의 필수 요소라 할 수 있는 경제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서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 수준이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지속적인 정착여부(이주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 결과, '주거 만족도'와 '교육/체육/문화 만족도'가 자긍심의 제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활동 만족도'와 '도로/교통 만족도'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정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보건/복지 만족도'는 지역정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아산시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정착패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아산시를 정착지역으로 선호하는 주요 이유는 '동료 및 친지의 권유'에 의한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관계자 인터뷰 결과). 하지만, 동료 및 친지의 권유만으로는 일시적인 정주는 가능할지 몰라도 지속적으로 아산시에 정착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 분석결과에서도 제시된 것과 같이 경제활동과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도시환경, 생활주변 청결도, 소음/대기/수질 등 환경분야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경제활동에 있어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사회 인적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다. 거주지 보호담당관과 정착도우미에 대한 만족도가 타 정착지원 프로그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매개로 한 인적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읍면동을 중심으로 서비스 연계팀, 통합조사팀, 자활고용팀, 종합사회복지관 및 지역협회 등이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역과 연계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거만족도와 교육/체육/문화 만족도가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요인으로 분석되어 이를 활용한 자긍심 고취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거주주택, 이웃간 관계, 생활편리, 생활환경 쾌적성 등으로 구성된 주거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웃과의 관계 개선과 같은 부문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것은 지역내 종합사회복지관 등 거점을 중심으로 이웃과의 친목을 제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생활환경과 관련한 쾌적성을 유지하기 위한 지역내 공동체 문화의 조성이 필요하다. 아산시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문화공연과 전시회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문화공연과 전시회 등이 개최될 때, 북한이탈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셋째,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통해 안정적인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아산시의 근로여건에 대한 만족도와 직업/보수에 대한 만족도가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나, 거주기간이 늘어날수록 임금 등에 대한 불만족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북한이탈주민의 일자리 제공과 보수 수준에 대해 아산시가 일정기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VI. 결 론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이들을 보호하고 직접 관리하는 기간이 짧은 반면에, 지역사회는 이들의 평생 거주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은 지방 차원의 주요 관계자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방향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은 보호중심에서 자립 및 자활기반 마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와 비정부기구가 공동으로 협력하는 지원체제로 변화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주무부서인 통일부에서는 주거지원 및 정착금 지원을 담당하고, 직업훈련 및 취업보호 등은 고용노동부의 산하기관인 지역별 고용지원센터가 담당하며, 신분보호는 지역경찰서가 담당하고 있으며, 민간단체들이 자원 봉사를 제공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각종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문제는 재정자립도가 매우 취약한 상황에서 재정적 부담뿐만 아니라 각종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부담을 갖고 있다. 또한, 거주지 보호담당관 역할을 맡고 있는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과 다중 업무로 인한 전문성 결여로 북한이탈주민의 지역내 정착을 위한 관리체계 운영에 있어서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만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실태조사와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속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고혜원. (2008). 새터민(북한이탈주민)의 직업훈련 현황과 과제. 2008년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는 문집.
- 곽정래. (2010). 북한이탈주민의 커뮤니케이션 활동과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경득 외. (2007). 천안시 삶의 질 지표조사. 충남: 천안시.
- 김연희. (2009). 북한이탈청소년의 학교중도탈락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사회복지학>. 61(4): 191-215.
- 김연희·조영아·유시은. (2009). 장기 정착 새터민의 빈곤특성 연구: 남한 빈곤층과의 비교 고찰. <한국사회복지학>. 61(1): 195-218.
- 김영만. (2004). 탈북자들의 소외감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영진. (2000). 관광호텔 지배인의 리더십 유형이 자긍심과 직무성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태룡 외. (2000).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 수준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 12(2): 135-155.
- 김현경·전우택. (2009).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이 외상 경험 이후 심리적 성장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40(2): 363-397.
- 민성길·전우택·김동기. (2006). 탈북자의 남한에서의 삶의 질. J. Korea Neuropsychiatr Assoc. 45(3). May 269-275.
- 민성길 외. (2010).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에서의 삶의 질: 3년 추적조사. J. Korea Neuropsychiatr Assoc. 49: 104-443.
- 민성길 외. (2003). 탈북자의 남한사회에서의 삶의 질. <사회정신의학>. 8: 28-38.
- 박선영. (2009). 지역사회 저소득 노인의 우울, 일상생활수행능력과 삶의 질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3(1): 78-90.
- 박선영. (2002). 탈북자 인체측정자료를 이용한 북한의 생물학적 복지 수준에 대한 연구. <한국문화인류학>. 35(1): 101-127.
- 박영미. (2008). 복지국가에서의 빈곤의 여성화와 사회적 배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8(4): 11-41.
- 박윤숙. (2007). 북한 이탈주민의 현황과 과제. <통일로>. 222: 26-39.
- 박윤숙. (2008). 북한이탈주민의 실태와 남한사회 정착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박철민·송건섭. (1999). 자치구 주민의 삶의 질 실태분석·평가.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1(4): 103-123.
- 박현선. (2002). 탈북자 국내 정착정책 발전 방향. <통일로>. 168: 58-67.
- 안혜영. (2008). 새터민의 사회적응정책의 방향모색. <복지동향>.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양정훈. (2005). 북한사회의 폭력성이 새터민의 남한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책과학학회지>. 9(4): 607-630.
- 유해숙. (2009). 새터민의 무력감 원인과 임파워먼트 전략. <동향과 전망>. 77: 352-388.
- 윤여상. (2007). 탈북자 1만명 시대 문제점과 대책: 체계적인 지원정책 제시와 국제기구와의 협력 필요. <북한>. 424: 75-84.
- 윤인진. (2007). 북한이탈주민의 건강과 경제적응의 관계. <보건과 사회과학>. 21: 65-96.
- 윤인진. (2001). 탈북과 사회 적응의 통합적 이해: 국내 탈북자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3(2): 123-184.
- 윤 황. (2003). 국내의 북한이탈 청소년 특수학교 설립을 통한 정규학교와의 연계방안. <북한학보>.

28: 169-194.

- 이근수. (2011). 삶의 질 관점에서 본 평택시의 정부신뢰.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 이기영. (2001). 북한출신 남한 주민의 사회적응 척도의 개발과 적용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정신건강사회사업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128.
- 이기영·배화숙. (2000). 탈북자의 남한사회적응에 대한 사회복지의 역할. <사회복지>. 146: 95-119.
- 이기영·이기춘. (2000). 탈북인을 통한 북한의 소비생활 및 남한과의 이질화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48: 57-74.
- 이범용. (2000).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교육 적응실태 연구. <통일문제와 국제관계>. 11: 71-91.
- 이상호. (1996). 쾌적한 삶: 환경 측면의 삶의 질. <한국행정연구>. 5(1): 79-101.
- 이시형. (2008).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OUGHTOPIA>. 23(1): 187-222.
- 이영선·전우택. (1996). 탈북자의 삶 : 문제와 대책. 서울: 오름.
- 이정우·금형수. (1996). 탈북이주자 사회정착지원 개선방안.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효원. (2008). 북한이탈주민의 이혼소송과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 <가족법연구>. 22(3): 425-460.
- 임경수·김재익. (1998). 수도권 신도시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8.
- 임정빈. (2010).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지역사회관계분석.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임정원·한인영. (2008). 유방암 및 부인과 암 생존자의 삶의 질에 대한 생존단계별 비교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0(1): 5-27.
- 전우택. (2000). 탈북자들과 보호경찰관들의 인간관계에 대한 분석: 보호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통일연구>. 4(1): 21-64.
- 정경환. (2001). 통일문제의 기본 인식과 대북정책 방향. <통일논총>. 14: 23-41.
- 정길호. (2008). 북한 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연계협력체계 구축방향.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정일환. (1996). 풍요로운 삶 : 교육·문화 측면의 삶의 질. <한국행정연구>. 5(1): 59-78.
- 정진경. (2002). 북한사람들의 성역할 특성과 가치관: 탈북자자료. <한국심리학회지>. 21(2): 163-177.
- 제성호. (2001). 탈북자 정착지원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사회적응지원을 중심으로. <중앙법학>. 3: 221-247.
- 조성환. (1996). 공평한 삶: 경제적 측면의 삶의 질. <한국행정연구>. 5(1): 19-40.
- 최경환. (2007). 북한이탈주민의 가치관변화. <통일문제연구>. 19(2): 343-371.
- 통일연구원. (2000). 북한이탈주민 문제의 종합적 정책방안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 최승호. (2010). 북한 새터민에 대한 사회통합 방안: 독일 사례를 바탕으로. <정치·정보연구>. 13(1).
- 통일부. (2007). 새터민 제도개선 범 정부 T/F. 새터민 정착실태. 서울: 통일부.
- _____. (2008). 2008 통일백서.
- 황무임. (1998). 북한의 인권실태와 탈북자 형성. <복지행정연구>. 14: 3-25.
- Aarosan, N. K. (1991). Quality of life research in oncology: past achievements and future priorities. *Cancer*. 67: 839-843.
- Ferrell, B. R, Hassey, D. K, and Grant, M. (1995), Measurement of the quality of life in Cancer survivors. *Quality of life Research*.. 4: 523-531.
- Graves, P. E. and Linnerman, P. (1979). Household Migration: Theoretical and Empirical Results. *Journal of Urban Economics*. Vol. 6.
- Pedro, L. W. (2001). Quality of life for long-term survivors of cancer. *Cancer Nursing*. 24: 1-11.
- Pierce, J. L. and Gardener, D. G. (2004). Self-esteem within the work and organizational context: a review of the organizational-based self-esteem literature. *Journal of Management*. 30(5).
- Ravenstein, E. G. (1885). The Laws of Migration.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Vol. 22.
- Todaro, M. P. (1976). Internal Migration and Urban Employment: Com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76.
- Zebrack, B. (2000), Quality of life for long-term survivors of Leukemia and Lymphoma. *Journal of*

Psycho-social Oncology. 18: 39-59.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http://www.dongposarang.or.kr>.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저자소개]

權慶得 미국 University of Akron에서 Ph.D.(행정학 전공)를 취득하고 현재 선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인사행정학회 회장, 공공부문 Best-HRD 인증위원회 위원, 공공기관 역량평가위원을 역임하였다. 주요 관심분야는 지방자치단체간 협력 및 갈등, 공공부문의 HRD·HRM, 픽션(fiction)을 활용한 행정학 연구, 청년고용 및 취업, 비교행정연구, 조직문화연구 등이다(kdkwon@sunmoon.ac.kr).

任正彬 건국대학교에서 행정학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성결대학교 행정학부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지방자치, 갈등관리, 인사행정, 정보화정책 등이다. 최근 논문으로는 '온라인공공서비스와 정책거버넌스'(공저, 2011), '지방선거정치의 제도, 이슈 그리고 선거캠페인'(공저, 2010), '공공기관의 효율적 조직관리를 위한 직무분석에 관한연구'(공저, 2010), 'E-거버넌스와 시민참여'(공저, 2010), '도농통합의 정치경제'(공저 2009) 등이 있다(jbyim@sungkyul.ac.kr).

金德俊 건국대학교에서 행정학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충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지방자치, 지방재정, 인사행정 등이다. 최근 논문으로는 '청년 인적자원의 해외취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공저, 2011), '지방정부 인사교류의 운영실태와 발전과제: 경기도의 사례'(공저, 2009) 등이 있다(kdj70@cri.re.kr).